

원 본	세이쿄 신문	발행일	2011-03-25			면(面)	3
제 목	힘을 모으자!	내 용	지진피해지는 지지말라! <3>				
번역자	Y-TRANS	번역레벨	완직역	쫄직역	어중간	쫄의역	완의역
					O		

도호쿠대지진의 피해지에서 11일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지금도 약 25만7천명(24일정오현재)이 피난생활을 하고있다. 음식, 물, 연료, 의약품, 생활필수품등 물자가 부족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다. 이런 극한 상황속에서도 많은 학회원들이 분투하고 있다. 본지의 현지지국에 보내온 멤버들의 활약을 소개한다.

<후쿠시마 (福島) >

쓰나미가 덮쳐오는 가운데 사람들을 구조!

남자부 정신으로 ‘기죽지 않는다’!

자신도 지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난처로 가는 도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혜롭게 구조한 스즈키 마사토시(鈴木正敏)씨. (35) (이와키시, 토요마지부 남자부본부장)

스즈키씨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작업현장에서 한창 전기공사를 하는 중이었다. 곧바로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해 피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는 순간 거대한 쓰나미가 집을 삼켜 버렸다.

“덤프트럭이 정면충돌해 오는 것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떠밀려 가면서 마음속으로 강하게 창제를 올렸다. 그러다 순간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머리위로 빛이 보였다. 맨손으로 지붕을 밀어 올려 밖으로 나오니 집이 내륙으로 500미터 이상 쏠려가 있었고 주위는 무참하게 변해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두려움에 떨며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다행히도 수심은 허리정도였고 스즈키씨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물에 건너갔다.

“모두 괜찮아요?”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초등학교로 유도했다.

그 뒤에도 피해지와 피난소를 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피난시켰다.

수백 미터 떨어진 전기회사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 구조대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날이 저물었다. 주위는 점점 어두졌으나 스즈키씨는 공사용 헬멧의 헤드라이트에 의존해 구조활동을 계속했다.

충격으로 걸을 수 없게 된 노년의 부인부를 업고 피난소까지 이동했다.

먼저 집을 나와 피난소에 도착한 아버지 야스토시씨(62)는 ‘아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단념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때, 돌아가며 사람들이 “댁의 아느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라며 고마워했다고 한다.

피난소에 도착했을 때, 스즈키씨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였다. 응급처치를 받고나자 이번엔 남자부의 안부를 확인하러 나갔다.

다행히 전원이 무사했다. 그러나 크나큰 충격에 낙담해있는 남자부가 많았다.

스즈키씨는 “우리에게겐 무적의 신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않시다!” 라고 격려했다. 그 기백에 부원들도 원기를 회복해 함께 구조활동에 참가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죽지 않는다”라는 남자부 정신이 재난 피해자들의 마음속에 용기의 불을 태우고 있다.

피난처인 회관에서 2살 아이의 생일잔치를!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 가자!

한때 피난소였던 [이와키 평화회관]에서 있었던 훈훈한 이야기!

스즈키유우키(鈴木勇喜)씨 (35,에나지부 남자부지구리더)와 메구미(恵)씨(32,부인부) 부부는 쓰나미속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그 때 당당히 서 있는 회관을 보고 “가재도구는 모두 잃었다. 그러나 목숨만은 남았다. 신심이 남았다. 걱정없다!” 라고 다시 일어설 것을 굳게 맹세했다.

지진 3일 후인 14일, 이 날은 둘째 루미의 2살째 되는 생일.

부부는 올해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정을 회관에 피난해 있던 회원이 알았다. 모두의 양해를 얻어 겨우 도착한 구조물자에 들어있던 빵에 꿀을 얹어 즉석으로 생일케익을 만들었다.

모두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부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생일 파티가 됐습니다”라며 목메어 말했다.

피난민들도 ‘어린 생명을 소중히 해 나가는 일에,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 어떤 파랑(어려움)도 타고 넘어 끝까지 살아가자!’라고 결의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낙담하거나 침울해지지 맙시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시다! 곳곳하게 살아갑시다.

이러한 기운은 모두에게 퍼졌다.

원 본	세이코 신문	발행일	2011-03-25			면(面)	3
제 목	힘을 모으자!	내 용	지진피해지는 지지말라! <3>				
번역자	유병호	번역레벨	완직역	쫄직역	어중간	쫄의역	완의역
						O	

<미야기 (宮城) >

소방대원으로서 활약

죽은 형에 대한 맹세를 가슴에!

5년전부터 지역의 소방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고우코우스케씨(34,와타리쵸,와타리중앙지부,남자부부부장)은 필사적으로 피해자 구조에 임했다.

울려대는 경보소리를 듣고 해안가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을 자동차에 태우고 500미터 앞에 있는 중학교로 피신.

학교의 3층까지 뛰어 올라간 후, 제방을 넘어 맹렬하게 뒤쫓아 오는 거대한 쓰나미를 보았다. 선박, 자동차를 덮쳐 근처의 집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리며 달려오는 무서운 기세의 검은 탁류. 순식간에(마타타쿠) 학교의 1층 부분이 잠겼다.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 흠뻑 해수에 갇혀 피난한 250명이 학교건물 옥상에 고립됐다.

눈발이 날리는 강추위속에서 피난민들은 모포를 몸에 감싸고 서로에게 몸을 의지했다. 첫날 밤, 공황상태가 된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마음속에 7년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동생의 일이 떠올랐다. “왜일까?”

슬픔 속에서 부인부 다보회 멤버의 활동체험담에 마음이 움직였다.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광선유포에 진력해 가는 해맑은 미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케다 선생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아직 젊은이들에게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때 그 부인의 말을 떠올려 보며 고우스케씨는 피난소인 중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움직였다. 물탱크에서 마실 물을 확보하고 화장실용 물과 청소도 하는 등 활약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헬리콥터와 보트가 구조하러 왔다. 사람들의 유도를 맡은 스고우씨는 함께 피난해 있던 어머니 테이코씨(61, 지부부부인부장)와 함께 맨 마지막에 탈출했다.

탈출해 간 곳은 지역의 고등학교. 피난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소방대원으로서 주민들의 안부를 살폈다. 직장도 집도 모두 파괴되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흘러도 다시 활기넘친 와타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회관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스승의 진심어린 전언에 용기

이시노마키 문화회관에는 지진이 발생한 날, 약 60명의 지역의 주민들이 몸을 피했다. 스기야 마사치오씨(62,우에노지부 총현부총합장)과 마사에씨(60,총현부총합부인부장)부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스기야마씨부부가 회관에 피난해 왔을 때, 사람들은 주차장에 있었다. 그곳에 바닷물이 밀고들어왔다. 곧바로 회관으로 들어갔으며 1층은 물에 잠겨서 2층으로 피난했다. 공포에 떨고있는 노인들, 우는 아이들을 안고 있는 부모들...

해가 저물자 매서운 추위가 덮쳐왔다.

스기야마씨는 회관운영을 맡고 있는 다카하시류우코씨(57,우에노지부 지부부부부인부장)과 함께 회관의 비품을 한데 모았다. 손전등, 행사용 방한복, 모포, 이불 그리고 창고에 있던 스낵과자 그것들을 나누어 추위와 배고픔을 견뎠다. 여진이 계속됐고 추위에 잠을 못자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수록 더욱 격려해 나갔다.

12일 아침(지진 다음날) 회관에서 물이 빠져나갔고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3단으로 겹쳐진 자동차, 집으로 돌진해온 어선, 구부러져 휘어진 가드레일. 비참하기 그지없는 광경에 가슴이 미어졌다.

“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각오한 스기야마씨는 화장실 청소반, 차량반, 물품관리반등을 조직해 피난생활의 체계를 잡았다.

13일 오전, 학회원들의 진심이 전해졌다. 치바키조우씨(61,카난조라쿠지부,부지부장)이 트럭을 타고 달려왔다. 트럭 화물칸에는 물탱크가 실려있었다. “우물물을 떠왔어요”

환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날 오후, “세이교신문입니다!”라고 본지의 판매점 주인인 다카다카즈오씨(60,부현장)은 신문 한 부 만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교통이 마비되어 다카다씨가 사는곳에도 신문은 배달되지 못했다. 배달된 지역을 찾아 신문 한부를 겨우 얻어왔다. 신문에는 이케다 명예회장의 메시지가 실려 있었다. 피해를 입은 벗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회관을 향한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불굴의 신력, 행력을 분기해 위대한 불력 법력을 발휘하여 이 고난을 반드시 극복해 가지 않겠습니까!”

스기야마씨부부를 포함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다.

“저서야 되겠는가!” 라는 결의가 넘쳤다.

다음날(14일), 오전11시 47분,

문자메세지가 도착했다.

핸드폰을 열어본 스기야마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안부를 알 수 없었던 차남 히데유키씨(28, 남자부지구리더)의 문자였다.

<끝>